

유년의 뜰

왓 아 유 두잉?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임 리딩 어 북, 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왓즈 유어 프렌드 두잉? 당신의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석양이 오빠의 이마와 목덜미를 붉게 물들이며 방을 깊숙이 가로질렀다.

내가 기억하는 한의 그 시간은 늘 그랬다.

함석 지붕이 흐를 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저녁 햇빛이 칼처럼 방안에 깊숙이 꽃힐 즈음이면 어머니는 화장을 시작하고 오빠는 창가에 놓인, 붉은 꽃무늬의 도배지 바른 껌깍 앞에 앉아 꼼짝 않고 소리 높이 영어책을 읽었다. 나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갖가지 화장품이 담긴 병들을 만지작거리거나 창을 통해서 멀찍이 보이는 개울의 다리와 신작로, 그리고 더 멀리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초등학교의 창을, 점점이 붉은 빛이 묻어나는 새털구름들을 바라보며 이유가 분명치 않은 조바심으로 어머니와 오빠 사이의, 은밀히 조성되어가는 팽팽한 공기를 지켜보았다.

캔 유 텔 미 핫 히 이즈 두잉? 오빠가 발은기침으로 목청을 돋우었다.

파마한 머리칼이 얹혀있는지, 신경질적인 손놀림으로 빠르게 빗질을 하던 어머니가 손을 멈추고 거울에 바짝 머리를 들이대었다. 흰 머리카락이 뿔어나왔다.

벽에 버티어놓은 거울에, 등지고 앉은 오빠의 몸이 고집스럽게 담겨 있었다. 뽕혀나온 새치를 손가락 사이에 들고 잠시 들여다보던 어머니가 햇빛을 피하는 시늉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거울을 옮겨놓고 화장을 계속했다. 나무레 위에 쌓아놓은 우리들의 때문은 이부자리가 거울면에 들어찼다. 오빠의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거친 손짓으로 책장을 넘기는 바람에 낡고 눅눅해진 종이가 힘들게 찢겨지는 소리가 났다. 오빠의, 긴장으로 경직된 등이 제풀에 움찔했다.

어머니는 등뒤의 작은 시위 — 그러나 오빠 나름대로는 필사적인 — 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첩으로 탁탁 얼굴을 두들기고 가늘고 둥글게 눈썹을 그렸다.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번갈아 보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호기심과 찬탄으로 거울 속에서 점차 나팔꽃처럼 보얗게 피어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시집을 때 해왔다는 등신대(等身大)의 거울은 이 방에서 유일하게 흠 없이 온전하고 훌륭한 물건이었다.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남루해져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거울은, 어머니가 매일 닦는 탓도 있지만, 나날이 새롭게 번쩍이며 한구석에 버티고 있었다. 그 이물감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실체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건지도 몰랐다.

거울 속에는 언제나 좁은 방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꿉놀이를 하다가도, 게으르게 눈을 껌벅이며 잠에서 깨어나서도, 싸움질을 하다가도,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도 문득 눈을 들면 방의 한구석에 버티어 선 거울이 자신은 볼 수 없는 등까지도 환히 비추는 바람에,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낯설게 만나지는 자신에게 경원과 면구스러움을 느껴 옆으로 슬쩍 비켜서거나 남의 얼굴처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거울은 기움여놓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작게도 크게도 길게도 짧게도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추었다. 언니와 나는 어머니가 없을 때면 끄끙대며 거울을 옮겨놓고 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놀이를 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연극놀이를 했는데 내용은 늘 똑같았다.

젠 멍청이니까 병자나 시켜. 작은오빠의 말에 따라 내가 힘없이 드러누르면 작은오빠는 의사, 언니는 천사가 되었다. 병자는 시종 가냘프게 신음을 하고,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먹으며, 눈을 감고 있다가 죽어서 천사와 함께 하늘에 오르는 것이 연극의 끝이었다. 천사는 할머니의 치마를 둘러쓰고 옷자락을 펄럭이며 머리 주위를 돌다가 내가 머리를 모로 떨어뜨리고 탁 숨을 끊으면 안아올렸다. 그러고는 화를 냈다.

너무 똥보라서 날 수가 없구나.

천사를 따라 펄럭펄럭 날갯짓을 하며 방안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연극이 막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대체로 정말 죽은 채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면 언니는 나를 마구 흔들며 짐짓 겁에 질린 소리로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노랑눈이 죽었니? 눈떠봐, 정말 죽었니?

의사가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비집고 입김을 후후 불어넣으며 투덜대었다.

이 바보야, 일어나, 이젠 끝났단 말야.

그러나 나는 천사와 함께 나는 것보다 죽은 채하고 누워 있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 그렇게 가만히 있노라면 내 작은 계교로 의사는 계속 주사를 놓고 천사는 다리가 아플 때까지 주저앉을 수 없어 연극은 언제까지나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입술을 꽃모양으로 뚜렷이 그리고 하얗게 분이 오른 얼굴을 다시금 분첩으로 탁탁 두드렸다.

오빠는 더 큰 소리로 책을 읽었다.

찾아 유 두잉? 아임 리딩 어 북.

창 아래, 텃밭가로 지나가던 사람 두엇이 고개를 빼어 안을 기웃거렸다.

어쩌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꼭 미국 사람 지껄이듯 하는군.

오빠는 변성기에 접어든, 거세고 뻑뻑한, 그러면서도 여성적인 목소리로 한껏 혀를 굴렀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시험 준비를 한다는 오빠는 저물 때까지 창가에 앉아서 영어책을 읽었다. 아예 책을 덮어놓고 1과부터 외우기도 했다. 우리의 좁은 방은 언제나 오빠의 책 읽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단조롭고 긴 소절의 노래였다. 오빠가 방에 없을 때조차 그 소리는 지루하게 되풀이해 울리고 있었다. 찾아 유 두잉? 찾즈 유어 프렌드 두잉?

중학교 2학년에서 학교를 중단한 오빠가 읽는 것은 피난집에 소중히 감춰온 중2 교과서였다.

오후에 야간 중학교가 생기자 어머니는 말했다. 온 식구가 한뼉 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학교를 보내마.

그런데도 오빠는 세 해째 같은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보풀이 일어 눅눅하고 두껍게 부푼 책에 오빠는 딱딱한 마분지를 덧대어 겹장을 만들었다.

사람들 말대로 오빠는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었다.

갖고 놀아도 좋아.

어머니는 싹싹 훑어 바른 빈 크림통을 내게 내밀고 마지막으로 입술 곁에 날카롭게 미인점을 찍은 뒤 일어나, 거울에 옷맵시를 비춰보았다.

다녀오마.

어머니는 저고리 소매에 손수건을 살짝 찢어넣고 꽃가지라도 꺾어든 양 한들한들 걸어나갔다.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오빠는 탁 책을 덮고 용트림을 하듯 아가 지개개를 켜며 웃웃을 벗어던졌다.

막 넓게 퍼지기 시작한 완강한 어깨 위로 아직 연약하고 섬세한 목과 작은 머리통이 불균형하고 어색하게 얹혀 있었으나 이미 청년으로서의 단단한 골격이 잡힌 몸이었다.

오빠는 무언가 억제하려는 듯, 솟구치려는 듯한 몸짓으로 또 다시 허리를 뒤틀어 지개개를 켜고 손아귀에 힘을 주어 천천히 팔을 안으로 굽혔다.

방안에 아직 남아 있는 짙은 지분(脂粉)내에 하르르 솜털을 일으키며 영성하나 웅크린 근육들이 아아아아 떨 듯이 일어서고 있었다. 거무스레한 겨드랑이를 보이며 다시 한번 지개개를 켜고 오빠는 발로, 무덤게 닫힌 방문을 차 열었다.

활짝 열린 방문으로, 뒷마루 앞마당에서 풍구를 돌리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다. 저녁 지을 불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한 손으로는 풍구질을 하면서, 불꽃이 잘 일지 않는지 할머니는 연신 화덕 밑 불구멍에 얼굴을 대고 푸우푸우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었다. 하얗게 사원 재가 화덕 위로 날았다. 햇빛 때문에 불티는 보이지 않았다.

노랑눈아, 된장 한 숟갈 퍼오고 고추 몇 개 따와라.

매운 연기와 흘러내리는 땀으로 눈물을 질금거리며 할머니가 소리쳤다.

된장 항아리의 아구리를 덮은 호박잎에는 구더기가 하얗게 올라와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하듯 호박잎을 젖혀 던져버리고 된장을 한 숟갈 뜬 후 꼭꼭 눌러 장독대 곁의 호박잎을 하나 따서 덮었다.

아침마다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면 호박잎에 구더기가 하얗게 올라와 있었다. 웬 가시가 이렇게 끓는담. 할머니는 혀를 차며 호박잎을 벗겨 담장 너머로 던져버리고 새 잎을 덮었다. 그 일은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된장을 뜨고 돌아서며 나는 봉숭아·채송화 따위 일년초가 자자분하게 심겨진 마당 건너 안채의 부엌과 잇달린 방을 훑듯 바라보았다.

역시 둥글고 배가 부른 자물쇠가 시커멓게 매달린 채 고요했다. 늘 마당을 사이하고 바라보이는 방이건만 그 앞을 지나갈 때는 눈을 내리깔고 발소리를 죽여 빨리빨리 건다가 훨씬 지나친 후에야 엇보듯 훑듯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의 버릇이었다.

해질녘의, 그림자 같은 정적 속에서 할머니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풀무질을 하고 뒤꼍의, 꽃이 진 감나무에서는 고요할

만큼의 감이 다닥다닥 열려가고 있었다.

윤기나는 검푸른빛으로 뺨뺨하고 단단히 약이 오른 고추를 한 움큼 따서 치마폭에 담는데, 동생을 업고 텃밭가에서 목을 빼어 길 쪽을 살피던 언니가 급히 몸을 숙였다. 그 바람에 혀가 깨물렸는지 동생이 숨넘어갈 듯 울었다. 텃밭은 길에 면해 있지만 길보다 한 자 쏠이나 턱이 지게 낮고 뽕나무 울타리로 둘러쳐져 언니의 몸뚱이야 납작 엎드리지 않고도 쉽게 숨길 수 있었건만 언니는, 개울의 다리 위로 저무는 햇빛을 하얗게 튕겨내며 자전거가 달려올 즈음이면, 지레 땅바닥에 엎드렸다.

자전거 뒤에 도시락을 싣고 달려오던, 오학년인 언니의 담임 선생은 어느 때처럼 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따르릉따르릉 텃밭을 지나쳤다. 자전거가 멀어지자 언니는 그제야 몸을 일으켜 흠뻑은 손바닥을 털고 우는 동생의 볼기짝을 철썩 때렸다.

순자 엄마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대, 그래서 순자는 밥하고 빨래하고 동생들 보느라고 학교도 빠져. 선생님은 술만 마시면 애들을 때리고, 녀들이 불쌍하다, 다 함께 죽어버리자, 하면서 우신대. 언니의 버짐이 편 거뒀한 얼굴이 성난 듯 붉게 붉어졌다. 언니와 같은 학년인 순자는 담임 선생의 딸이었다. 바람난 순자 엄마가 읍의 미장원에서 머리를 지저붙이고 올망졸망한 다섯 아이를 버려둔 채 도회지로 달아나버린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늦은 밤 들창 밖에서 텅텅대는 자전거 소리가 들리면 언니는 잠결에도 작게 한숨을 쉬며, 선생님은 또 우시겠구나, 순자는 또 매를 맞겠지, 탄식조로 웅얼거렸다.

치마폭에 담은 고추에서 나는 독한 매운내에 재채기가 났다.

한바탕 재채기를 하자 눈물이 났다.

땅으로부터 낮게 거물거물 어둠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개울의 다리께는 아직 하얗게 햇빛이 남아 있었다. 눈물이 어롱어롱한 눈에, 다리를 건너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쳐들었다. 남자·여자·어른·아이들의 모습이 어렵듯이 구별되었다. 어른들은 커다란 등짐을 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마을로 들어오는 피난민임을 알 수 있었다. 지난 겨우내 봄내, 앓는 아이를 업고 개울 아래로 지친 그림자를 떨어뜨리며 피난민 가족들은 물처럼 흘러들어왔다. 오늘 어느 집인가 헛간을 치울 것이다. 우리도 지난해 그들처럼 초라하게 이곳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저녁을 먹고 난 우리는 모두 뒷마루에 나앉았다. 떠돌이 이발사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먼저 큰오빠가 목수건을 두르고 이발사 앞에 앉았다. 기계가 채각채각 지날 때마다 새하얀 속살이 길을 냈다. 순식간에 하얀 알머리가 된 오빠는 민트한 머리통을 쓸며 피식 씩스럽게 웃었다.

이발사가 올 때마다 피해 달아나 목 뒤로 한 뺨이나 머리가 길어진 언니는, 머리를 기르겠다고 가냘프게 항의를 했지만 할머니의 매운 눈에 단박 주눅이 들어 머리를 깎았다. 희끗희끗 서캐가 실린 머리털이 발 밑에 떨어질 때는 눈물을 툭툭 떨어뜨렸다. 언니는 머리칼을 길러 등뒤로 출렁하게 늘이는 것이 소원이었다.

머리 밑과 목덜미에 땀띠가 빨갛게 चुच히 돋은 동생은 머리가 깎일 동안 할머니에게 안겨 내내 아아아아, 피리 소리처럼 약하게 울었다. 울면 조그만 얼굴은 늙은이처럼 온통 주름살투성

이가 되었다.

내가 수건을 두르고 앉자 할머니는 언니에게 눈을 흘겼다.

다시 노랑눈이 머리에 부젓가락을 댔단 봐라.

언니는 자주 할머니의 눈을 피해 불에 달군 부젓가락으로 내 머리칼을 태웠다. 파마를 시켜준다는 것이다.

서걱서걱, 눈 위로 위태롭게 가위가 지나갈 때 나는 설새없이 눈을 깜박였다.

이발사의 가방에는 큰빗·작은빗·가위·면도용의 접는 칼·솔·비누·이발 기계 등 무엇이든 다 있었다. 나는 큰빗과 작은빗, 면도칼 따위를 쥔쥔 바퀴들며 움직이는 이발사의 굳은살 박인 손을 바라보았다. 이발사의 손에서도 숙인 머리에서도 진한 머릿기를 냄새가 났다. 나는 후루룩 숨을 들이마셨다. 구역질 나는, 익숙한 냄새였다. 나는 먼것번에도 또 그전에도 이발사의 머릿기를 냄새가 생소하지 않았다. 어디서 맡아본 냄새였을까, 나는 안타까이 생각했었다. 그러난 그것은 흘러간 시간의 저 안쪽 어디엔가에 숨어 전혀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가위질을 마친 이발사는 솔로 머리털을 털고 후후 입으로 불었다. 그리고는 부걱부걱 거품을 낸 비누를 솔에 듬뿍 묻혀 목덜미와 이마에 묻히고 면도를 한 후 보양계 분가루를 뿌렸다. 그래서 이발사가 다녀간 다음이면 동네 아이들은 모두 무 밑동처럼 퍼렇고 민트한 뒷머리로 값싼 분냄새를 풍기며 돌아다녔다. 남자 어른들까지도 울울이 기름으로 재워 납작해진 머리 모양으로 독한 화장품 냄새를 풍겼다.

할머니는 머리를 감고 오라고 우리를 개울로 내쫓았다. 머리를 깎고 난 뒤면 모두 허영계 기계충이 먹어들기 때문이었다.

노랑고 윤기 없는 머리털이 발 밑에 어지러이 떨어져 있었다. 바람결에 맥없이 후루룩 날리기도 했다. 나는 그곳에 침을 뱉고 발로 문질렀다. 그때 문득 나는 기억해낼 수 있었다. 이발사에게서 맡아지던 친숙한 냄새,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머리에서 풍기던 기름 냄새였다.

바람결에 두엄 냄새가 풍겨왔다.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8월로 접어들자 감나무 이파리는 윤기나는 감청빛으로 더욱 두꺼워지고 이파리 그늘에 숨을 듯 다닥다닥 달린 보다 옅은 빛의 열매는 작은 감자만큼이나 굵어졌다.

딸은 무성한 그늘로 더욱 창창(蒼蒼)하고, 장마가 견힌 지 오래건만 축축한 흙에서는 지렁이가 꾸물대고, 흙담 새막이 위로 노래기들이 분주히 기어다녔다.

변소는 감나무가 심겨진 딸의 구석에 있었다. 언니나 할머니는 우물가 수채에 쪼그리고 앉아 췌췌 오줌을 누었지만 감꽃이 지면서부터 나는 언제나 부네의 방 앞을 지나 감나무 그늘을 걸어 변소에 갔다.

노랑눈이년, 생긴 뽀수치곤 겁이 없어.

할머니는 맹랑하다는 표정으로 흐흐 웃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감나무 울울한 그늘에 들어서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방금 지나온 부네의 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슬며시 눈길을 돌려 안채 쪽을 보았다. 안집 여자는 낮잠에라도 빠져 있는 것일까,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나는 잠폴더미 속에 떨어져 있는 풋감을 재빨리 주워들었다. 한 주먹에 딱 차고도 남을 크기였다.

뒤뜰에 심겨진 서너 그루의 늙은 감나무로, 감나무집이라 불리는 이 집에 이사왔을 때 어머니는 우리들을 모아놓고 꽃이 지고 있는 감나무를 가리키며 단단히 타일렀다.

남의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손가락질도 하지 마라. 얼마나 음흉한 사람들인지…… 너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난리통에 바깥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놈이나 거지로 생각한단니까. 손버릇 사납다고 소문나면 가뜩이나 애 많다고 싫어하는 판에 외양간도 못 얻어든다.

가지가 휘어지게 다닥다닥 열린 감은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해 여름내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툭툭 떨어지고 그 소리는 마당 건너 돌아앉은 우리 방에서도 환히 들을 수 있었다.

변소를 가다가 발 아래 굴러다니는 감을 보면 우리는 얼굴에 주인집 방문을 훔긋거리고, 그러면 영락없이 방문에 붙인 조그만 유리 조각에 바짝 눈을 대고 이쪽을 내다보는 안집 여자와 눈이 마주쳐 똥이라도 피하듯 공연히 진저리를 치며 그것을 건너뛰거나 발로 췌췌 문대어버리곤 했다.

애들이 많아도 말썽을 안 부리는군요.

나름대로 정한 시험 기간을 끝낸 안집 여자가 만족스럽게 말하자 어머니는 공손하나 비웃는 듯한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애들 버릇은 애초에 맵게 들여야 해요, 세 살 버릇 여든 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여섯 차렷가 일곱 차렷가 헛행보를 한 뒤 읍내 밥집에서 드난을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들을 단속하는 일은 오빠가 맡았다.

떨어진 감에 손가락만 대봐라,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오빠는 잇새로 나지막이 말했다.

꽃감을 한입 베어무니 금시 뚝은 맛이 한입 가득 찼다. 이전의 그들 탓에 부네의 방은 햇빛 속에 밝게 떠 보이고 살눈썹 사이에서 가끔씩 조용히 부풀어오르며 흔들리는 듯도 했다.

두 쪽의 문이 맞닿은 곳에는 여전히 자물쇠가 무겁게 매달려 그 무게로 문살이 휘엿하게 늘어져 금시라도 메마른 소리로 무너져버릴 것만 같았다.

감의 뻑뻑한 살은 아무리 씹어도 좀체 목 안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조금 들큰하고 씹 뚝은 맛에 용기를 내어 다시 감을 하나 주워들었다.

저 문의 안쪽에 정말 머리를 깎이고 벌거벗긴, 귀신처럼 예쁘다는 부네가 있는 걸까.

사람들은 그녀, 부네의 아버, 그 늙고 말없는 외눈박이 목수가 어떻게 그의 바람난 딸을 벌건 대낮에 읍내 차부에서부터 끌고 와 어떻게 단숨에 머리칼을 불발송이처럼 잘라 땃바람에 골방에 처넣고, 마치 그럴 때를 위해 준비해놓은 듯 쇠불알통 같은 자물쇠를 철커덕 물렸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또 그녀가 들창을 열고 야반 도주를 하려 하자 발가벗기고 들창에 아예 굶은 대못을 쳐버렸다고, 그 통에 안집 여자는 어찌나 혼이 나갔던지 목수가 벗겨 던진 딸의 옷이 창 앞 석류나무에 사흘씩이나 걸려 있었는데도 모르더라는 얘기를 했다. 더욱이 애깃거리가 된 것은 읍에서부터 개처럼 끌려오는 과정이 부네 편에서도, 아버지 쪽에서도 있을 법한, 아이고 아버지 용서해주오, 한마디 말도, 분노의 씨근거림도 없이 시종 침묵으로 일관되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도시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늘 말이 없고

침울한 외눈박이 목수는 많은 딸 중 특히 부네를 각별히 아꼈고, 목수 일을 져혀둔 채 보름이고 한 달이고 객지로 떠돌았던 것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만으로 돌아오지 않는 부네를 찾기 위해서였다는 소문이었다.

방문은 그날 이래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적어도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꽤 여러 날이 지난 후 사람들은 말했다.

부네가 아이를 가진 게야, 아마 지금쯤 꽤 배가 불렀을걸, 어찌 첫눈에도 홀몸이 아닌 것 같더라니. 남몰래 몸뚱 후 용케도 아들이면 자식 없는 집에 업둥이로 들여보내고 멀쩡히 처녀 행세를 시키려는 속셈이지 뭐야.

그리고 더욱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다시 말했다.

바람이 난 게 아니라 몸쓸 병에 걸린 게야, 소문날까 무서워 쉬쉬하는 거지, 문둥이 있다는 소문만 나봐, 여기서 배겨낼 도리가 있겠어?

그게 아니라…… 혹시 미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들은 부네를 잊었다. 골방의 문이 닫히는 순간, 자물쇠가 덜컥 걸리는 순간부터 부네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자물쇠는 혹시 그녀가 끌려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완강히 채워져 있었고 그녀는 공기처럼 가볍고 투명해져서 창호지 가는 올 사이로 스며들어가버린 것은 아닐까.]

나는 부네가 방에 갇힌 것이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오고 난 후의 일인지 그전의 일인지 기억이 아리송했다.

이사 오던 첫날 이미 자물쇠가 잠겨 있는 것을 본 듯도 했고, 더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개울의 다리 위로 머리채를 잡혀 목을

늘어뜨리고 오던 부네와 그의 아버 모습의 어제의 일처럼 눈앞에 떠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두어 차례 다니러 와 와글와글 뿜어대던 외눈박이 목수의 그 많은 딸들 중 부네는 있었을까. 아마 명절이나 목수의 생일이었을 것이다.

그네들은 모두 대처에 나가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목수는 늘 연장을 벽에 걸어두고도 살 수 있는 게라고 했다.

늦복이 터져서…… 그의 등에 대고 사람들은 입을 비죽였다.

그네들이 오면 집 안에는 종일 기름 타는 냄새와 고깃내가 풍겼다. 부네는 그들 중 누구일까. 마당에 내놓은 화덕에서 누름적을 부치다가 기웃거리는 내게 사납게 눈을 흘기던 곱사등이인가, 아니면 소금물에 우린 풋감을 살며시 쥐어주던 여자인가,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갔을 때, 욕을 퍼부으며 호령을 한줌 머리에 내뿌리는 대신 자기 전에 꼭 오줌을 누고 자면 되잖아, 라고 말하던 여자인가.

그네들은 이튿날 아침이면 안집 여자의 것인 듯 때문고 해진 치마를 헐렁하게 질질 끌며,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이고 우물가에 나와 이를 닦고 몇 번이고 물을 갈아가며 세수를 했다. 그러고는 보양게 분 바른 얼굴로 황망히 집을 떠났다.

안집 여자는 허드레옷으로 갈아입고 술 취한 목수는 퇴침을 베고 누워 이틀이고 사흘이고 코를 골았다.

사람들 말대로 부네는 몸쓸 병을 앓고 있는 걸까, 미쳐서 짐승처럼 재갈 물리고 손발 묶여 갇혀 있는 걸까.

나는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도 실제의 것이 아닌 듯 아득히 여겨지는 부네의 방 가까이 다가가는 대신 안채로 눈을 돌렸다. 안

채의 건넌방 추녀 밑 벽에는 연장 망태가 걸려 있었다.

비 오는 날이 아니라도, 삼실로 툼툼히 얇은 마대는 대개 그곳에 걸려 있었다.

부네가 돌아온 뒤에도 목수는 연장 망태를 걸어둔 채 보름이나 달포씩 집을 비웠다.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캔다는 것이다. 때문에 별 잘 드는 안집 뒷마루에는 이름 모를 풀 뿌리·나무 뿌리들이 비약(秘藥)의 향기와 쓰디쓴 맛으로 말라가고 있었다. 안집 여자는 남몰래 땀을 뻘뻘 흘리며 약을 달였다.

비가 온 뒤나 산에서 돌아온 뒤면 목수는 망태를 내려 대패·까뀌·끌·톱 따위의 연장에 정성껏 기름을 먹인 후 다시 넣어두고 잠을 잤다.

마당까지 들리는 코고는 소리에 우리는 아, 목수가 돌아왔구나 생각하며 그의 고달픈 잠을 깨울까 쉬쉬 발소리를 죽였다.

나는 그가 일 나가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를 외눈박이 목수라고 불렀다.

여물지 않은 감씨가 아무 맛도 없이 우드득 씹혔다.

부네, 나는 그녀를 한 번쯤 본 듯도 하고 전혀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도 창호지 한 겹 너머 문의 안쪽에서 숨쉬고 있는 그녀를 생각할 때면 이상한 두려움과 가슴 한 귀퉁이가 무너져내리는 듯한 슬픔에 잠기곤 했다. 나는 이러한 감정을 달래듯 풋감을 또 하나 주워 씹었다. 뽕고 단맛이 위로처럼 따뜻하고 축축히 목 안으로 차오르고 까닭 모르게 눈물이 고여왔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서리기 시작하자 오빠는 책장을 덮고 일어났다. 거울을 보며 목에 붕대를 감고 오른쪽 손목에도 여러 번

겹쳐 찬찬히 감았다. 그러고는 뻗뻗하게 세워져 잘 돌아가지 않는 목을 비스듬히 돌리며 눈만 굴러 우리를 보고 — 우리라기보다는 언니에게 이르는 말이지만 — 쏘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 위협조로 이르고는 집을 나갔다.

여름 들어 오빠는 저물녘이면 불끈불끈 튀어오르는 여드름을 쥐어짜 피가 솟은 자국에 밥알만큼씩 반창고를 올려 붙이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밖으로 나갔다. 읍내로 나가는 것이다.

오빠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괜히 들뜬 얼굴로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과 부엌, 텃밭계를 들락거리던 언니는, 오빠가 개울을 건너가리라는 시간쥘을 두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비실비실 언니의 눈치를 보며 따라 나섰다.

마을의 어귀에 폭넓은 개울이 흐르고 다리를 건너면 읍이였다. 교회와 대장간·술집·여인숙·미장원, 그리고 하루 두 번 지나가는 완행 버스의 차부가 있는 읍의 큰길에는 닳새에 한 번씩 장이 섰기 때문에 저잣거리라고 불렸다.

밤이면 야간 중학교와 교회에서 나오는 오빠 또래의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몰려다녔다.

뻗뻗이 풀먹인 교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여학생들이 새침하게 지나가면 사내애들은 후익후익 휘파람을 불었다.

읍내 술집에서는 밤마다 싸움판이 벌어졌다.

너 죽고 나 죽자아.

저고리 앞섶을 풀어헤친 작부가 식칼을 들고 나와 사내를 쫓다가 제풀에 혼절해서 게거품을 물고 길 복판에 넘어지는 모양이나 미장원과 여인숙 골목을 뱅뱅 돌며 달아나는 사내를 보고 우리들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장이 서는 날은 구경거리가 많았다. 술집과 여인숙에서는 밤내 노랫소리,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아이들은 저물면 무언가에 이끌리듯 개울을 건너 저잣거리로 모여드는 것이었다. 아이들뿐이 아니었다. 나이 찬 처녀들도 잔뜩 조인 허리와 엉덩이를 흔들며 거리의 끝인 미장원에서 차부까지 오락가락하고 으아이스케키, 으아이스케키, 아이스케키 통을 맨 사내아이들이 허죽거리며 목청을 돋우었다.

이봐, 아가씨, 아이스케키 사줄게.

시간 좀 빌립시다.

차부의 정비공과 조수들은 벼은 윗몸의 근육을 불똥불똥 일으키며 휘파람을 불거나 고장난 버스나 트럭을 쇠파이프로 땡땡 두들겼다. 그녀들은 힐끗힐끗 뒤돌아보곤 저희끼리 소곤대고 키들거리며 천천히 거리를 지나쳤다.

언니는 오빠의 눈에 떨 것을 겁내어 불빛이 미치지 않는 그늘에 같은 또래의 계집애들과 무리져 앉아 사내애들의 희롱에 킁킁 웃어대거나 소리 높이 노래를 불렀다.

남이야 전봇대로 이를 쏘시건 말건.

남이야 뒷간에서 뉘시질을 하건 말건.

그러면 으레 껍껍하고 새된 사내애들 합창이 뒤따랐다.

만약에 백만 원이 생긴다면은 빨강 구두 높은 구두 많이 사줄게.

밤의 저잣거리는 늘 재미있었다. 나는 밤이 되어도 식지 않는 더위에 치마를 걷고 언니 또래 틈에 쥐새끼처럼 끼여 앉아 밤거리엔 음험하게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열기, 끈끈한 정념으로 가득 찬 달착지근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우리가 앉아 있는 곳에서 오빠의 모습은 환히 보였다.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밥집의 건너편, 하루살이때가 빛을 따라 바람개비처럼 어지러이 돌고 있는 전봇대에 비스듬히 기댄 자세로 서서 이 모든 거리의 풍경을 경멸하듯 바라보며 오빠는 봉대 같은 손에 하모니카를 들고 다만 외롭게 혀를 떨며 하모니카를 불었다.

언니도 머지않아 나이 찬 처녀들처럼 엉덩이를 흔들며 이 거리를 지나게 될 것이다. 오빠가 아무리 무섭게 단속을 한다 해도, 그 무엇으로도 언니의 밤 외출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도 자라면 역시 그럴 것이다. 굵은 벨트로 배꼽이 튀어나올 때까지 허리를 죄고 천천히 이 거리를 배회하게 되리라.

밤이 깊어지고 조심스럽게 불빛 그늘에 몸을 숨겼던 언니는 아쉬운 듯 뒤를 돌아보며 저잣거리를 떠났다.

마을로 들어오는 길, 인적 없는 다리를 건널라치면 어디론가 흘러가는 물소리 고요히 들리고 앞산의 짙짙한 숲에서 부어형 부어형, 들쥐를 찾아 부엉이가 울었다. 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러 언니는 갑자기 다급해지는 마음에 숨이 턱에 찼다. 발 빠른 오빠가 이미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내 손을 꼭 쥐 손바닥에 축축이 땀이 찼다.

황급히 들어와 숨을 가다듬고 자는 체하노라면 한 발 늦게 돌아온 오빠는 사천왕(四天王)처럼 문에 버티어 서서 냄새라도 맡을 듯 코를 벌름이며 말했다.

또 나갔었지, 또 나갔었지?

언니는 도무지 못 알아듣는 시늉을 하며 잠에 취한 소리로 우물쭈물 대답했다.

아냐, 내가 언제…… 어쨌다고 그래.

언니의 대꾸는 가냘프고 자신이 없었다.

밤에 쏸다니지 말아, 가만 안 둘 테야.

오빠는 그러고도 자못 미심쩍은 눈길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잠들었던 동생이 때마침 약하게 칭얼대기 시작했다. 벽을 보고 누웠던 할머니가 동생 쪽으로 돌아누우며 가슴팍을 풀어 빈젯을 물렸다. 오빠는 신을 벗을 염도 없이 문을 쥔고 선 채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니는 가쁜 숨을 죽이고 자는 체하고 있었지만 나는 오빠가 언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더듬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오빠가 또 언니를 때릴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저렇게 묵묵히 있는 것도 아마 트집 잡을 궁리에 골몰한 탓일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 밤이면 오빠는 언니를 때렸고 할머니는 말릴 염도 없이 동생을 업고 나가 개울가를 서성거렸다.

오빠의 매질은 무서웠다. 오빠는 작은 폭군이였다. 아버지가 떠난 이래 부쩍부쩍 자라는 오빠의 몸이 어느결엔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웠다. 어머니가 읍내 밥집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수상쩍은 외박이 잦아지자 오빠는 암암리에 아버지의 위치를 수락하였음을, 공공연히 자행되는 매질로 나타냈다.

오빠는 자신이 가장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어 언제나 침울하고 긴장으로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었다. 그 긴장으로 억눌려져 자라지 못하는 욕망, 자라지 못하는 슬픔, 분노 따위는 엉뚱한 잔인성이나 폭력의 형태로 나타났다.

때문에 한없이 크고 당당해 보이는 체구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때로 내게 어린애처럼 연약하고 애매해 보였다. 우리를 때릴 때

조차 어쩔 줄 모르는 듯 보이기도 했다. 오빠 자신도 이 사실을 깨닫는 듯 걸핏하면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붉혔다.

나는 오빠를 무서워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연민과 동정이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드러누워 나와 동생을 번갈아 발바닥 위에 베개통처럼 가벼이 얹고 들어올릴 때조차 — 동생은 숨넘어가는 소리로 모처럼 까르륵거리며 좋아했지만 — 나는 오빠가 무서웠다. 무서움 때문에 오빠의 몸은 한없이 커지고 이윽고 방은 오빠의 몸으로 숨쉴 틈도 없이 가득 찼다.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방안을 들여다보던 오빠가 세계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언니가 호르르 한숨을 쉬며 내게 속삭였다.

노랑눈아, 나 나갔었던 말 하지 말아.

저녁 밥상을 물린 할머니는 언니에게 설거지하라고 이른 뒤 동생을 업고 밖으로 나갔다. 동생은 해가 질 무렵이면 울어대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매일 밤 깊도록 동생을 업고 서성이다 밤이 슬로 머리칼과 옷이 눅눅히 젖을 때야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동생에게서는 감기 기운이 떠나지 않고 손과 발은 심상치 않은 미열로 늘 따듯했다.

거미처럼 여윈 그애는, 할머니의 빈젯을 빨 때 외에는 늘 가늘고 약하게 울었다. 모처럼 잠이 들었을 때도 힘없이 벌린 입에는 잔울음 끝이 물려 흐들였다. 나는 때때로 잠든 동생의, 늘 침이 흘러 별정계 혈어 있는 턱을 기이하게 바라보았다.

작은오빠는 개울에 어항을 묻어 미꾸라지를 잡거나 낭창낭창한 버드나무 회초리로 개구리를 잡아오고 할머니는 그것을 부지

런히 고아 먹여도 아픈 생살을 뒤덮은 부스럼은 낫지 않았다.

밭 가운데, 혹은 둔덕에서는 잔돌 무더기가 흔히 있었다. 애기 무덤이라고 했다.

우리는 언젠가 그애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와 어머니의 소리 죽인 울음을 들으며 홀이불에 감긴 그애는 조그만 보통이처럼 지젯짐으로 얹혀 나가게 될 것이다.

종일 냇가에서 어항을 놓고 먹을 감던 작은오빠는 팔다리를 내던지고 아랫목에서 잠들었다. 어두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그릇 소리를 내던 언니는 읍내에 나갔는지 조용했다. 오빠는 저녁 전에 진작 나갔던 터였다. 돌아놓는 작은오빠의 발길질에 발치께에 놓아둔 주발이 테구루루 구르고 뚜껑이 벗겨졌다. 뚜껑을 닫으려다 말고 나는 밥풀을 몇 알 뜯어 입에 넣었다. 회고 매끄러운 밥알은 알지 못할 사이 목구멍으로 슬쩍 넘어가버렸다. 나는 다시 부리나케 몇 알을 주워먹고는 표시가 안 나게끔 설핏설핏 퍼놓았다.

작은오빠는 이를 갈며 몸을 뒤척이다가 히잇 웃었다. 나는 급히 주발 뚜껑을 닫고 벽에 기대 앉았다. 어두운 방은 무서웠다. 자꾸 주발로 손이 갔다. 밥알의 들큰한 맛이 입에 남아 있는 동안은 무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슬금슬금 손이 가는 사이 주발의 밥이 펍 줄어 들었다. 한 겹 살포시 덮은 쌀밥 밑은 우리들이 먹는 시커먼 보리밥뿐이었다. 할머니는 단번에 알아차릴 것이다. 나는 자꾸 주발 뚜껑으로만 가는 손과 싸우며 그곳에서 애써 눈을 돌렸다. 어머니는 술을 마신 날은 대개 밥을 먹지 않는다. 나는, 이번 한 번만, 이라는 단서로 염치 없는 손을 타일렀다. 살며시 뚜껑을 열

어 한 움큼 쥐고는 떠낸 자국을 고르게 펴놓고 작은오빠 곁에 누웠다.

자고 싶었다.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 그리고 성난 기세로 저것 거리에서 돌아온 오빠가 함부로 우리들의 팔과 다리를 짓밟으며 건너 질러 벽에 대고 씨근거리는 것을 보기 전, 아니 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기 전 잠들고 싶었다.

안집 뒤뜰에서 익어가는 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네도 자고 있을까. 어두운 밤 홀로 깨어 누워 있으면 무서운 생각만 잇달아 떠오른다. 무서움을 잊기 위해 한 알씩 아껴가며 오래도록 씹었는데도 한 움큼의 밥은 거짓말처럼 없어졌다. 발가락만 움직이면 발치에서 기우뚱, 주발이 굴렀다.

나는 일어나 더듬더듬 부엌으로 나갔다. 발돋움질을 하고 선반의 그릇과 찬장을 뒤졌다. 할머니가 삶아둔, 밤마다 우는 동생을 달래기 위한 고구마는 찬장의 냄비 속에 숨겨져 있었다. 고구마가 없어진 것을 알면 할머니는 한밤중에라도 자는 언니와 작은오빠를 흔들어 깨울 것이다.

네가 처먹었지, 네가 처먹었지.

나는 쥐가 그런 것처럼 냄비 뚜껑을 부엌 바닥에 떨어뜨려놓고 조금 웅내나는 고구마를 한입 베어물었다.

부엌의 판자벽 바깥으로 할머니의 발소리가 났다. 나는 급히 고구마를 삼켰다. 목이 메고 가슴이 뻐개지는 듯 아팠으나 물을 찾아 마실 겨를도 없었다. 조금 전 떨어뜨린 냄비 뚜껑이 다급한 발걸에 차여 데구루루 굴렀다.

방으로 들어오다 문지방에 짙은 발이 몹시 아팠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호야의 불을 밝혔다. 석유포가 풍기

고 그을음이 꺼렇게 피어오르다 방이 밝아졌다. 불빛이 펑 밝아졌는데도 할머니는 눈이 침침한지 손을 더듬어 나를 벽 쪽으로 밀고 동생을 눕혔다.

나는 살그머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주머니에 엉겨붙은 고구마가 손에 찢득찢득 묻어났다.

에미야, 시장하지? 어서 들어라.

밤늦어 어머니가 돌아오자 앉아서 꼬박꼬박 졸던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왔다. 나는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다.

관두세요, 밥집에서 끼니 거를까봐요.

어머니에게서는 원 술내가 물씬 풍겼다.

아니다, 속 버린다. 좀 들어라.

어머니가 버선을 한 짝씩 힘겹게 뿔아 윗목으로 던졌다.

에그머니, 밥이 왜 이러냐?

어머니에게 술갈을 들려주며 주발 뚜껑을 열던 할머니가 기겁을 했다.

나는 오줌이 마려워 아랫배가 팽팽히 당겨왔지만 꿈쩍할 수가 없었다.

이젠 에미 밥까지 손을 대니…… 노랑눈이년 것이다. 쥐새끼처럼 무엇 하나 남겨두는 게 없어. 안집에선 떨어진 감꼭지 하나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하지. 이거 원 남부끄러워서……

할머니는 과장된 노기로 목청을 높였다. 할머니의 어머니에 대한 말투에는 언제나 면목없어하는 듯한 아침기가 있었고, 어머니 역시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속이 쉬이 꺼져서 그래요. 보리밥이 무슨 맥이 있나요. 한참 먹을 나인데…… 아무거나 집어먹어 속을 채워야죠.

어머니가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은 흡사 술주정 같기도, 꾸녕 같기도 했다.

남 들으면 내가 굶기는 줄 알겠다. 큰애들보다 먹긴 더 먹어. 몸을 봐라. 즈 언니보다 더 실팍하지.

할머니는 당장이라도 나를 흔들어 깨울 듯한 서슬이었다.

관두세요.

어머니는 밥상을 고스란히 밀어놓았다. 그리고 옷도 벗지 않고 팔베개를 하고 모로 누웠다.

죄 될 소리지만…… 난 개가 어쩐지 내가 낳은 애 같지 않아요.

잠이 드는가 싶었던 어머니가 술기 가신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돌아앉아 발에 들기름을 바르며 대꾸가 없었다. 석 옷내와 들기름내가 뒤섞여 그을음처럼 거뭇게 방을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난리 통에 파편을 밟아 댄 발에 밤마다 들기름을 바르고 기름종이로 썼다.

어머니는 별반 대꾸를 기다리는 기색도 없이 말을 계속했다.

……웃지도 않고 말도 않고…… 다른 애들하곤 달라요. 멍청하고 걸귀가 들렸는지 노상 먹을 생각밖엔 없어요. 좀 모자라는 게 아닌가 몰라…… 일곱 살이 되도록 오줌을 싸고…… 그것도 내년에는 학교에 넣어야 하는데. 어린애가 자꾸 살이 찌니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몸에 물이 차면 그렇게 붓는 수가 있대요.

노랑눈이보다 막내가 걱정이다.

할머니가 바삭바삭 기름종이 소리를 내며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아무래도 제구실을 못 할 것 같아. 웬일로 날이 갈수록 까무라'저가니…… 등에 얹으면 꼭 검불 하나 얹힌 모양으로 맥이 없어. 고추가 아깝지.

어머니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다.

방안은 조용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더 입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의 생각을 하는 것이리라. 날로 희미하고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두운 밤, 망령처럼 성큼 벽 틈으로 스며 당당히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드러눕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다.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땀으로 펴 젖은 셔츠의 등과 더 짙은 얼룩으로 젖어 있던 겨드랑이를 보이며 트럭에서 내리던 모습뿐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손을 내저으며 울부짖었다.

이 근방에서 자리잡고 있을게요. 곧 돌아와야 해요.

어머니가 몸을 일으켰다. 벽에 엄청나게 큰 그림자가 일렁였다. 어머니는 혹 남뿔불을 붙어 켰다. 그림자는 순간 펄럭이며 사라졌다.

큰애가 안 들어왔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겠쥬.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풀벌레가 찌룩찌룩 맑게 울고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모으노라면 내 몸은 아주 얇고 투명한 껍질이 되어 샷자리 밑을 빠르게 달려가는 그리마의 발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밤이 깊어 오빠는 축축한 이슬내를 풍기며 돌아왔다. 알지 못할 욕설을 중얼거리며 우리들의 몸을 건너 벽 쪽에 누웠다.

나는 소리나지 않게 고구마를 조금씩 떼어 단맛을 혀로 녹이며 끈끈한 손가락을 뿌리까지 찬찬히 빨았다.

그리마의 수많은 발들이 더욱 분주히 어둠을 잡아대고, 베개를 베지 않고 자는 우리들은 맹렬히 이를 갈았다.

어머니는 잠결에 괴롭게 한숨을 쉬고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부엌에서는 배고픈 쥐가 간단없이 달그락거리며 빈 그릇을 뒤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말갭게 뜨고 조그맣게 말했다.

네 집에 가아, 먹을 건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조바심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문지방에 쫓은 발은 이미 아프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몸을 오그려 발을 싸쥐고는 사납게 얼굴을 찡그렸다. 어둠 속에서 찡그리고 또 찡그렸다.

맹렬히 이빨 가는 소리 속에 우리들이 저마다 뿜어대는 땀 냄새, 떨어져내리는 살비듬내, 풀썩풀썩 뛰어대는 방귀 냄새, 비리고 무구한 정육의 냄새, 이 모든 살아 있는 우리들의 냄새는 음험하게 끓어올랐다.

나는 가만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머리맡께를 더듬었다. 어머니는 취한 중에도 꼭 지갑을 요 밑에 찔러두고 잠이 드는 것이었다. 나는 지갑에서 지전을 한 장 꺼내고는 다시 그것을 요 밑에 넣었다. 어머니는 취한 탓인지 언제나 지갑에서 돈이 비는 것을 모르는 성싶었다. 그러나 나는 어쩌면 어머니가 알고도 일부러 모르는 체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때문에 결국 돈을 꺼내게 되고야 말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갑에서 그

것을 빼낼 때까지, 달디단 사탕을 다 녹일 때까지도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

나는 돈을 아직도 끈적이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놓고 반듯이 누워 비로소 아슴아슴 잠에 빠져들어갔다.

그저도 뒤뜰에서는 툭툭 감 떨어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풀벌레 우는 소리가 한결 가까웠다.

부네가 울고 있다, 소리없이. 까무룩이 잠속으로 떨어져내리며 나는 두서 없이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꿈이었을까.

늦더위는 좀체 물러가지 않았다. 아침부터 함석 지붕을 녹여 버릴 듯 불볕을 퍼부었다.

노랑눈아, 애 좀 업어라.

내게 동생을 업혀 띠로 찬찬히 감은 뒤 할머니는 꼬웅, 커다란 빨래 함지를 이었다.

발가벗은 아이들이 물장구질치는 얇은 물을 지나 빨래를 하거나 푸성귀를 씻는 여자들을 지나 할머니는 개울을 거슬러 위로 자꾸만 올라갔다.

개울의 상류, 사람의 발길이 드문 정한 데를 찾아 할머니는 빨랫감을 담갔다. 나는 개울 기슭, 산수유나무의 열은 그늘에 동생을 내려놓고 진무른 턱과 머리에 달라붙은 파리를 쫓았다.

거미처럼 여윈 동생은 이파리 사이로 새어드는 햇빛에 설새없이 눈을 깜박이며 얼굴을 찡그렸다. 여름내 땀띠가 새빨갭게 솟아 끓아 터지면서도 긴 내의를 벗기면 푸릇하고 매마른 살갗에 단박 고름이 돋았다.

파리 쫓는 일에 싫증이 난 나는 쇠비름 풀을 뽑아 풀각시를 만

들어 물에 띄우고 냇물에 발을 담갔다.

빨래를 다 한 할머니는 햇빛으로 하얗고 뜨겁게 달구어진 넓적바위에 빨래를 펴 널었다. 빠른 물살에 치마가 젖자 나는 발가벗고 물 속에 들어갔다. 개울 밑, 둥글게 닳은 조약돌 사이에서 발은 갑자기 돌아난 듯 아주 희고 깨끗해 보였다.

할머니는 흐르는 물을 한 번 더 손으로 휘저어 검불과 풀잎들을 떠내려보내고는 비녀를 뽑았다. 쫑쫑 땀은 가느다란 머리 타래가 단번에 등허리로 늘어졌다. 할머니는 머리 밑에 바짝 잡아맨 땀기를 풀었다. 기름에 절어 자주 땀기는 검은색으로 윤이 났다.

옛날 버릇이 남아서…… 기생이었던다.

할머니의 꽃땀기를 가리키며 어머니는 다분히 경멸조로 말했다.

할머니 이름은 봉지였다.

어찌나 예뻐던지 봉지 봉지 꽃봉지라고 불렀단다.

외할아버지는 아흔 칸 고래등 기와집을 지어주고 할머니를 소실로 들였다고 했다.

할머니는 목욕이 잦았다. 한겨울에도 킁킁한 부엌에서 보양계김을 피워올리는 함지 속에 들어앉아 절벽절벽 물소리를 내며 몸을 닦았다. 물론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단단히 문을 잠그고서였다. 방 안에서 할머니의 몸 닦는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는 또 말했다.

옛날 버릇이 남아서…… 청승이지 뭐냐. 잠자리 뒤흔 영감님도 없는 터에……

세 해 전인가 할머니가 처음 우리집에 오던 날의 광경은 지금

도 한 장의 그림처럼 내 머릿속에 또렷이 박혀 있었다.

그때를 전후한 일은 뭔가 몹시 어수선했다는 것밖에는 기억이 흐릿했다.

아버지는 뜰의 한구석을 파고 있었다. 곁에는 사기와 유리 그릇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그릇들을 깨지지 않게 땅속 깊이 묻고 우리는 어디론가 떠난다고 했다. 아버지는 허리를 굽히고 설새 없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곡괭이질을 했지만 굳게 얼어붙은 땅은 파이지 않았다. 오히려 곡괭이날이 텅기듯 부러져나갔다.

바람에 매운 눈발이 흩날렸다. 대문 밖에는 트럭이 서 있고 만삭의 어머니는 뒤통뒤통 오리 걸음으로 보통이를 하나씩 날라 트럭에 실었다.

그때 활짝 열린 문으로 누군가 살쾅이 들어섰다. 흰 눈에 묻어온, 때아닌 꽃잎 같다는 인상이었다.

이마 위로 오색술을 늘인 검정색 조바위를 맵시 있게 쓰고 자줏빛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할머니는 씨암탉처럼 아기작아기작 얄전히 걸어 들어왔다(그러한 걸음이 파편에 텐 발의 절룩임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인 것을 알기는 그 얼마 후 맨 처음 닿은 피난지에서 몸풀 어머니의 산구완을 할머니가 도맡게 되면서 부터였다).

우리는 할머니를 보는 순간 갑자기 어리둥절해서 한동안 대문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머니마저도 그랬다.

짐을 덜고 추위도 막자는 생각으로 겹겹이 옷을 껴입어 걷기도 어려울 만큼 옷 보따리가 되어버린, 그리고 이 부산을 떨어야 하는 이유가 갑자기 몰라질 만큼 해맑고 천연한 얼굴로 수줍은

태를 보이며 눈발 속에 서 있는 모양은 웬지 우리에게 섬뜩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할머니가 우리집에 나타날 때까지 할머니를 보기는커녕, 우리에게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후에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할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어머니는 첩에게 빨렸다는 말을 썼다) 돌아간 후, 화류계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 자식을 낳지 못한 할머니는 쪽 혼자 살고 있었다고 했다.

아버지 역시 할머니를 보자 잠시 멍청해지더니 그때까지 손에 쥐고 있던, 날이 부러져나간 곡괭이' 자루를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통명스럽게 내뱉었다. 빨리 떠나자구.

할머니는 먼구스러운 낯으로 조심스레 두루마기 자락을 감싸 쥐고 트럭의 짐칸에 올라탔다. 즉시 할머니에게 넘겨진 나는 왜 그렇게 할머니의 머리에 얹힌 조바위가 무서웠을까. 내가 심하게 낮가림을 하며 울어대는 바람에 할머니는 조바위를 벗고 밤새 겨울 찬바람 속을 얼어붙을 듯 시린 맨머리로 정수리를 하얗게 보이며 가야 했다.

할머니가 들고 온 조그만 보통이에는 청홍의 술을 늘인, 머리를 맞댄 봉황 두 마리가 금실과 은실로 찬란히 수놓인 붉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속에는 돌아간 영감님과 자신의 은수저가 각기 한 벌씩 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삼실처럼 희누르고 거친 머리를 물 속에 담그고 오래오래 감았다. 젖은 머리카락을 땀아 자주 땀기 물려 단정히 쪽 켜 후 내 벗은 몸을 잡아 겨드랑이에 끼고 물 속에 머리를 잡아 넣었다.

머리가 물 속에 들어가자 갑자기 머리 뚜껑이 열려 서서히 텅

비어가듯 그렇게 서늘하고 거뿔해졌다.

여름이어도 첫물은 늘 시렸다. 하늘과 구름과 나무가 곤두박질치듯 빙 돌며 물구나무를 섰다. 느닷없이 물 속에 거꾸로 박힐 때 나는 본능적인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머리 밑을 흐르는 물의 감촉에 곧 익숙해졌다.

나는 팔을 늘어뜨리고 조용히 거꾸로 비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늘과 그것을 떠받친 밋밋한 능선과 나무, 작은 풀쭉 따위가 보일 듯 말 듯 흔들렸다. 작은 송사리떼가 쏜살같이 살넝싹 위로 지나갔다. 울울이 흩어진 머리칼은 물풀처럼 흐느적거리며 물 속 바위 틈으로 스미었다.

이년, 이 쇠똥딱지 앓은 것 좀 봐라.

할머니는 서걱서걱 사정없이 머리를 문질렀다.

한낮의 햇빛이 조용히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을 뿐 물 흐르는 소리조차 조을 듯 나른히 가라앉았다. 나는 느슨해진 할머니의 팔에서부터 더 깊이 물 속에 머리를 담갔다. 개울 바닥, 돌부리에 비로드처럼 부드럽고 푸른 이끼가 숨어 자라는 것이 보였다. 물 속에 잠긴 눈에 비친, 거꾸로 선 풍경은 언젠가 보았던 듯 몹시 친숙한 것이었다.

저고리를 벗은 할머니의 겨드랑이에서는 시큼한 땀내가 풍기고 땀에 젖은 풍성한 한 줌의 털이 할머니가 머리를 문지를 때마다 어깨를 간질였다.

내 머리를 다 감기고 나자 할머니는 돌아서서 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미끄러운 돌에 기우뚱 위태롭게 발을 내디디며 물 속으로 들어왔다.

할머니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시들고 메마른, 팔

다리와는 달리 속살은 눈부시게 희고 특히 어머니처럼 다산(多産)의 흥한 주름이 없는 배는 둥글고 풍요했다. 할머니의 거뭇한 가랑이 사이에서 거품을 내던 물은 조금 아래쪽에 선 내 허리를 휘감고 흘러갔다.

나는 개울의 가운데 잠깐 망연해져 서 있는 할머니에게서 문득 훑날리는 눈발에 꽃잎처럼 묻어들어오던 날의 놀라움을 생생하게 되살렸다.

할머니는 아름다웠다. 내 눈길을 느낀 할머니는 잇몸을 내보이며 호호 웃었다. 햇빛 아래 입을 벌리고 웃는 할머니는 마른 꽃잎 같았다. 봉지 봉지 꽃봉지. 할머니는 정말 새까맣게 여문 씨앗이 배게 들어찬 주머니와도 같았다.

파편의 화상으로 밤마다 허물을 벗는 연한 분홍빛의 발은 물살에 따라 흘러와 쌓이는 모래 속에 묻혀갔다.

물 가운데 우뚝 선 할머니는 물감처럼 넓게 한없이 풀리고 내 주름지고 불품없는 가랑이 사이에서 거품을 내고 흘러갔다.

얼굴 위로 개미라도 기어가는지 동생이 가냘픈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물소리에 섞여 그것은 마치 개울 바닥에 모래가 쌓여 가는, 혹은 풀벌레 소리처럼 심상하고 자연스럽게 들려 어서 가 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로인 모양이었다. 동생이 있는 풀숲으로부터 나타난 팔뚝 굵기의 번지르르한 구렁이 한 마리가 대가리를 물에 묻고 느릿느릿 물을 따라 헤엄쳐가는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문득 생각난 듯 무심히 중얼거렸다.

애가 혼절을 했겠구나.

어머니는 늦잠을 잤다. 언니와 작은오빠가 학교에 간 지도 꽤 오랜 참이었다. 지분이 얼룩진 얼굴에 햇빛이 닿자 어머니는 지난밤의 숙취로 부석부석 부어오른 얼굴을 손등으로 가리며 돌아누웠다.

늘 그렇듯 오빠가 돌아왔아 소리 높여 영어책을 읽기 시작하자 나는 어머니의 머리맡을 돌아 방을 나왔다.

마을의 어귀, 읍으로 나가는 길의 반대쪽에 구멍가게가 있었다.

내가 문간에 서서 두릿두릿 가게 안을 들여다보노라면 치마를 걷고 앉아 부채질을 하거나 파리채로 뚜덕뚜덕 파리를 잡고 있던 젊은 아낙네는 말없이 입이 넓은 유리병의 꽃모양으로 오그린 양철 뚜껑을 열고 사탕을 두 알 꺼내주었다. 때로 무표정한 얼굴로 병 밑바닥에 수북이 떨어진 굵은 설탕 가루를 한 줌 덧줘 어주는 선심도 켰다. 나오기가 귀찮은지 쪽유리로 흘깃 내다보고는 게으르게 하품을 하며 돈 거기 놓고 꺼내가거라, 말하기도 했다. 그녀는 늘 내 주머니 속의 돈이 꼭 사탕 두 알 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이제껏 사탕 외에 다른 것을 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면 나는 사탕을 두 개 꺼낸 뒤에도 곧 뚜껑을 닫지 않고 머뭇거렸다. 이편을 내다보는 기척이 없으면 재빨리 한 개를 더 꺼내 주머니에 넣고 돈 여겼어요, 크게 소리치고는 나오는 것이었다. 소 눈썹만한 사탕을 입에 물면 볼이 미어지게 튀어나왔다. 나는 그 두 알의 사탕으로 점심때가 훨씬 이을 때까지 건디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다 녹을 때까지는 집에 들어갈 수 없기도 했다.

나는 어슬렁어슬렁 신작로를 따라 걸었다. 길 옆 옥수수 이파리는 흙먼지를 보양게 뒤집어쓴 채 축축 늘어지고 터질 듯 여물게 알을 실은 옥수수 수염이 노랗게 바래지고 있었다.

나는 사탕의 단맛을 아껴 되도록 천천히 빨며 먼지가 풀풀 이는 길을 걸었다. 쿵, 쿵, 먼데서 대포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 보이는 몇 개의 겹쳐진 능선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나는 자주 멈춰 서서 입 안의 사탕을 꺼내 눈앞에 들어 올려 작아진 정도를 살피고는 주머니에 넣었다. 열 발자국 정도를 걸어 입 안에 남은 단맛이 말끔히 가신 후에야 다시 사탕을 빨았다. 때문에 손가락들은 끈끈한 사탕기로 물갈퀴처럼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신작로의 끝에 언니가 다니는 학교가 있었다. 나지막한 단층 목조 건물이었다. 운동장을 두른 탱자나무 울타리가 드티어진 교문 앞에서는 솜사탕 장수가 틀, 틀, 틀, 틀, 구름 같은 솜사탕을 피워올렸다. 갈때기 모양의 함석통 안에 흰 가루를 한 줌 넣고 가느다란 막대를 꽂은 뒤 발틀을 돌리면 막대에는 솜이 한 겹씩 감기고 금시 목화꽃처럼 하얗게 반짝이며 피어올랐다. 그것을 보는 일은 언제까지나 싫증이 나지 않았다. 한참을 서서 다섯 개, 열 개로 자꾸자꾸 불어나는 솜사탕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솜사탕 장수는, 먹고 싶으나, 먹고 싶으면 돈 갖고 와 사먹어라, 하고는 보아란 듯 열한 개짜의 솜사탕을 탁 쫓았다. 콜타르로 검게 칠한 낮은 목조 건물의 열린 창에서 짹짹히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학교 뒤 야산 중턱, 철조망이 쳐진 곳은 고아원이었다. 철조망 안에는 창고처럼 높직한 유리창이 달린 판잣집과 두어 개의 군

용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공사를 하려는지 각목과 벽돌도 군데 군데 쌓여 있었다. 햇빛이 짹짹하고 그늘이 없어 계집애들은 각목을 엇갈려 세운 틈의 좁은 그늘에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를 잡아주었다. 옷통을 벗은 사내애들은 물지게로 물을 길어 날랐다.

작은오빠는 늘 그애들을 부러워했다. 못으로 날선 칼을 만들고 상처의 피땀이야 썩 혀로 핥고 밤마다 서너 명씩 패를 지어 달아나면 또 그만한 숫자의 다른 아이들이 어디선가 잡혀온다고 했다. 언니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저리를 쳤다. 갈 때 보자, 나지막이 잇새로 내뿜는 그애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이란 오빠의 반에서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러한 경고를 들은 뒤, 집으로 돌아가는 으스스한 길목에는 영락없이 그애들의 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맘만 먹으면 변소에 거꾸로 처넣는 것똥이야 식은죽 먹기라는 것이다.

우유 가루를 팔던 계집애가 철조망 가까이 다가왔다.

먹고 싶니, 좀 줄까?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애는 손바닥에 조금 남은 우유 가루를 내 눈에 대고 혹 붙여 날렸다.

빨리 없어져, 이 똥보야.

판잣집 앞에 세운 산소통이 땡땡땡땡 여러 차례 울렸다.

배고프다 땡땡땡.

밥먹어라 땡땡땡.

아이들은 재빨리 일어나 머리채를 흔들며 다투어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나머지 사탕을 입에 넣고 왔던 길을 되짚어 마을을 지나

읍내로 갔다.

장이 안 서는 날이라 한산한 한낮의 저잣거리에 땅, 땅, 대장간의 망치 소리만 생생히 울렸다.

나는 거리의 끝까지 느릿느릿 걸으며 두어 사람을 내려놓고 떠나는 완행 버스 쫓무니를 따라가보기도 하고 죽은 듯 조용한 미장원과 술집·여인숙 골목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이 거리를 지나가노라면 늘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가 전 투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트럭에서 끌어내려진 곳은 여기서 얼마쯤 떨어진 곳일까. 흐린 기억으로도 우리는 아버지를 내려놓은 곳에서 그닥 멀리 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대장장이는 이글이글 타는 참나무 숯불에 쇠를 달구고 힘찬 망치질로 날을 버리었다.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겨드랑이 안쪽의 살이 푸르륵푸르륵 부풀어올랐다. 대장간 앞에 드러누워 별 쥔게 익은 얼굴로 잠든, 농기구를 손보러 온 농부들 곁을 지나치다가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 중에 눈에 익은 연장 망태를 베고 모로 꼬부려 누운 안집의 외눈박이 목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훨씬 기울었을 때야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읍내로 나갈 시간이었다.

동생을 업고 텃밭에서 서성이던 언니가 애써 웃음을 숨기고 비쭉 입을 내밀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암시였다.

망할 년, 어딜 그렇게 쪼다니니.

우물가에서 돌절구를 씻다가 할머니가 한마디 핀잔을 주었다. 방안의 오빠는 책을 읽으면서도 바깥의 동정을 날날이 살피고 있었던 듯 췌긴 절구를 단숨에 부엌으로 들어 날랐다.

쪼뚱같이 덥고 어두운 부엌에는 이미 불 피운 화덕이 들어와 있고 물이 김을 내며 설설 끓었다. 무슨 일이 있는가는 이제 확실해졌다. 나는 병긱병긱 자꾸 웃음이 번지는 얼굴로 부엌과 뒤꼍을 들락거리다가 할머니에게 머리를 쥐어박혔다. 화장을 마치고 나가는 어머니에게 할머니가 은근하게 말했다.

에미야, 저녁은 꼭 집에서 먹어라.

할머니가 또 임자 없는 닭을 잡아온 것이다. 할머니의 빨래 함지는 빨랫거리에 비해 엄청나게 컸다. 그리고 가끔 그 큰 함지 속에는 커다란 목은 닭이 죽은 듯 다리를 꺾고 앉아 눈을 뒤룩거리고 있곤 했다. 동네에서 떨어진 채마밭을 어정거리는 닭을 잡아온 것이다. 할머니는 끝내 임자 없는 닭이라고 우겼다.

할머니가 그 닭의 목을 죽지 속에 파묻은 후 돌절구에 넣고 공이로 찼으면 닭은 단 한마디의 비명도 없이 죽었다.

웃이 척척 들러붙게 더운 날인데도 할머니는 부엌문을 닫아 걸고 흘러드는 땀에 눈을 섬벅이며 닭털을 뽑았다.

우리는 방문을 굳게 닫고 땀을 뚝뚝 흘리며 뜨거운 닭국을 마셨다.

할머니는 우리의 손이 닿기 전 먼저 닭의 다리와 뚱집을 오빠의 밥 위에 얹었다.

뒤처리도 재빨랐다. 바람에 날리지 않게 재에 버무린 닭털을 오빠는 마당 구석 깊숙이 묻고 부엌 바닥의 검게 엉긴 피도 흙을 뿌려 쓸자 감쪽같았다.

할머니는 또 살이 말끔히 발린 닭뼈를 눈에 안 띄는 찬장 뒤에 놓았다. 지네를 잡아 약에 쓴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름기 번질한 입술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방문을 열고

뒷마루에 나왔었다.

처음 우리가 이사왔을 때 동네에서는 자꾸 닭이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고 닭 입자는 잃어버린 닭을 찾아 우리 방 쪽을 기웃거렸다. 외지에서 들어온 피난민들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그러나 할머니가 정작 커다란 빨래 함지를 이고 나가기 시작한 것은 일 년이나 지난 다음부터였다. 어차피 우리는 거지나 다름없는 뜨내기 피난민이었던 것이다.

오빠는 처음엔 닭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 자기 몫의 국을 보아란 듯 뜨물통에 쏟아 우리를 경악케 했다. 그러나 한참 자랄 나이의 왕성한 식욕을 오랫동안 외면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동생에게는 소다를, 내게는 호렴을 한 줌 먹였다. 안 먹던 음식을 먹고 채하면 큰일이라는 것이다. 호렴은 짜고 썼다. 목구멍을 넘어갈 때는 따갑고 쓰라렸다.

한밤중, 타는 듯한 갈증으로 잠을 깬 나는 잠든 몸들을 더듬더듬 타넘어 방문을 열었다.

소금 먹은 놈이 물컨다더니.

그때까지도 잠들지 않고 있었던 듯 어머니는 술내를 풍기며 후후 웃고, 오줌만 싸봐라, 키 썩워 동네 조리를 돌릴 테니, 할머니가 으름장을 놓았다.

우물은 깊었다. 둥그렇게 내려앉은 어두운 하늘은 두레박줄을 한없이 한없이 빨아들이고 방심하고 있던 어느 순간 마침내 철버덕 수천 조각으로 깨어져 흐트러졌다.

이슬이 잘디잔 유리 파편처럼 반짝이며 축축이 내리고 있었다. 한차례 물을 마시고 발등에 쏟아붓고 나는 다시 끝없이 두레박줄을 풀어내며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우물 속은 고요하고

알 수 없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속에서 어찌면 탄식과도 같은 누군가의 숨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도 했다.

부네의 방, 뒷마루 밑에서 쥐가 한 마리 재빠르게 달아났다. 마루의 벌어진 틈 사이로 달빛이 깊숙이 스미고 있었다. 나는 다가 마루 밑을 들여다보았다. 마루 밑에는 방금 쥐가 장난을 치던 것인 듯 구두가 한 짝은 모로, 한 짝은 엎어진 채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흙먼지가 가득 속을 메운 구두는 굽과 코가 칼날처럼 날렵하게 빠진 하이힐이었다. 나는 흙을 털어내고 손바닥으로 문질러 반짝 윤을 내고는 가만히 젖은 발을 집어넣었다. 발목이 꺾일 듯 휘청 앞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신을 벗어 댕돌 위에 나란히 놓은 뒤 방문에 눈을 갖다대었다. 안은 어두워 촌촌한 문의 간살 사이로 아무것도 눈에 잡히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여느 때의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붉은 물이 들기 시작한 감이 가끔 생각난 듯 툭툭 떨어져 굴렀다.

한밤중에 이렇게 나와 앉아 부네의 방을 바라보면, 너무 조용하기 때문일까, 낮의 일들이 꼭 꿈속의 일처럼 아주 몽롱하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밤마다 술 취해 오는 어머니, 더러운 이불 속에서 쥐처럼 손가락을 빨아대는 일 따위가 한바탕의 긴 꿈만 같이 여겨졌다. 진짜의 나는 안타까이 더듬어보는 먼 기억의 갈피썹에서 단편적인 감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키가 몹시 컸다. 아니 그것은 덩지 큰 오빠를 향해 하던, 아버지를 쏙 빼었다는 할머니의 말에서 비롯된 연상인지도 몰랐다.

저녁을 먹은 후 바람이 서늘해지면 아버지는 나를 어깨 위에

태우고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의 무릎을 타면 어찌나 높던지 나 자신 풍선처럼 공중에 둥실 떠오르듯 눈앞이 어지러이 흔들렸다.

곧 동생이 태어날 거다. 아버지는 내 넓적다리를 꼭 쥐며 노래 부르듯 말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었단다.

꼭 잡아. 아버지의 말에 따라 아버지의 머리를 잡으면 손에 찢득찢득한 머릿기름이 묻어났다.

아버지는 내게 연약한 넓적다리, 혹은 발목을 잡던 악력(握力), 막연히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 보다 커다란 것, 땀으로 젖어 있던 등허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억 역시 내 상상이 꾸며낸 더 먼 꿈속의 일은 아니었을까.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가 돌아온다. 두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정다운 기억,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얼마쯤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매일 술 취해 돌아오는 어머니를 향해,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차갑게 협박하는 오빠까지도.

우리가 임자 없는 닭의 맛에 길들여지듯, 어머니의 지갑을 더듬는 내 손길이 점차 담대해지고 빼내는 돈의 액수가 많아지듯, 할머니가 단말마의 비명도 없는 도살(屠殺)의 비기(秘技)를 익혀가듯, 그리고 종내는 눈의 정기만으로도 닭들이 스스로 죽지 밀에 고개를 묻고 널브러지듯 아버지 역시 달라져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 있던 그 긴 시간의 갈피짬마다 연기처럼 모호히 서린 낯센은 새로운 전쟁으로 우리 사이에 재연될 것이기에 차라리 그림고 정답게 아버지를 추억하며 희망 없는 기다림

으로 우리 모두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돌아오지 않을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음을 변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아니었는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부터 들려오는 대포 소리는 고즈넉이 가라앉은 이 마을에 문득 전쟁을 상기시켰고, 드문드문 흘러드는 피난민들은 아직도 바깥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빨간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장독대 위를 날았다. 낮잠을 자는 사이 비가 그쳤나보았다. 따가운 별에 청명한 바람기가 숨어 있었다.

일년초가 심겨진 장독대 주위는 가을꽃으로 붉었다. 저녁답이었다.

물이 끈 장독 뚜껑에 얹게 햇빛이 떠 있고 잠자리는 앓을 듯 말 듯 망설이며 뱅뱅 돌았다.

할머니는 개울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았다. 이맘때면 우물가에서 쌀을 씻던 안집 여자도 기척이 없었다.

나는 빗물이 질척하게 끈 고무신에 발을 꿰고 툇마루에 앉았다. 멍하니 부네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가을 해는 짧았다. 어느새 부네의 방문은 옅은 햇빛에 녹녹히 잠겨들고 있었다. 나는 물에 잠기듯 잤아드는 부네의 방을 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러움이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불현듯 단힌 방문의 안쪽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찌면 약한 탄식 같기도, 소리 죽인 신음 같기도 했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어느 순간 방문의 누렇게 찌든 창호지가 부풀어오르고 그 안에서 어른대는 그림자를 얼핏 본 것도 같았다.

아아아아아아.

그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분가루처럼 얇게 떨어져내리는 햇빛뿐이었다. 내가 들은 것은 환청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입 안쪽의 살처럼 따뜻하고 축축한 느낌이 내 몸을 둘러싸고 있음을, 내 몸 가득 따뜻한 서러움이 차올라 해면처럼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떠돌던 고추잠자리가 잠깐 물에 스치듯 풍지를 담았다 뻗 순간이었을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햇빛이 사위었다는 것뿐.

부네의 방은 박명 속에 어슴푸레 잠겨들었다. 햇빛은 이제 우리 방 서쪽 창에만 조금 남아 있을 뿐이었다. 맴돌던 고추잠자리는 담장 너머 피마자 이파리로 옮겨앉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옷을 벗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불룩 튀어나온 배와 작고 주름진 가랑이를 물끄러미 보며 나는 흐느꼈다.

깊은 밤, 안채에서 느닷없이 곡성이 터졌다.

딸이 죽었다. 혀를 물고 자살을 했다. 약을 달여 들어가니 글썽 벌써 죽어 있더라지 뭐냐.

나갔다 들어온 할머니가 쉬쉬하며 수군거렸다.

그럼 정말 딸을 가둬두고 있었나요?

어머니가 남포에 불을 붙이고 일어나 앉았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마당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마당에서 부네의 늙은 아비가 대패질하는 소리였다.

널은 뭘 하러 짜오. 거적집에 맡아 저잣거리에 내다 묻소. 오가는 사람 발길에 밟히게시리.

안집 여자가 짹 잠긴 목소리로 말했지만 외눈박이 목수는 묵묵히 대패질을 했다. 웅이가 박힌 곳은 몇 번이고 힘들여 다시 밀었다. 읍내 대장간에서 벼리어온 톱과 망치, 대패날은 첫물인 듯 날빛을 내며 매끄럽게 나뭇결을 가다듬었다.

우리는 눈곱 낀 눈을 섬벅이며 빙 둘러서서, 송진이 묻어나는 덜 마른 소나무의 속살이 한 꺼풀씩 벗겨지며 더욱 희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르지 않은 생나무의 향기가 독하게 코를 찔렀다. 목수의 얼굴은 술에 취한 듯 붉었고 손등과 이마에 지렁이처럼 굵은 힘살이 불거졌다. 대패밥은 얼마든지 나와 금시 우리의 발 밑에 수북이 쌓였다.

저녁 무렵 널에 못 박는 소리가 팡팡 들렸다. 그리고 부네는 어둡기를 기다려 기진한 안집 여자의 흐느낌 속에 차일도 휘장도 술도 국수도 없이 집을 빠져나갔다. 저녁 내내 우리는 방에 갇혀 있었다. 할머니는 연신 문구멍으로 눈을 갖다대는 언니의 뒷덜미를 잡아채고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애들이 일찍부터 흉한 꼴을 보면 팔자가 세어져.

부네의 방문에서 자물쇠는 벗겨졌지만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부네의 죽음은 소나무 속살의 희디흰 향기로 남아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다.

남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얗게 닭아 세워둔 고무신에 마약 발을 꿰려는 어머니의 앞

을 오빠가 가로막았다.

뭐라고들 하든?

어머니는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오빠는 바라보지 않고 건성 되물었다.

갈보래요, 늙은 갈보.

어머니의 눈가가 순간 확 붉어졌으나 곧 태연히 대꾸했다.

실컷 떠들라지.

아버지가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글쎄다.

오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부엌에서 바깥의 동정을 살피며 전전궁궁 발소리들을 죽이던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슬쩍 얼굴을 내밀다가 다시 들어갔다.

다녀오겠어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먼지 하나 묻지 않은 흰 고무신에 공연히 걸레질을 하는 시늉을 하고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나갔다.

요즘 들어 어머니는 술을 덜 마시는 대신 안 돌아오는 밤이 잣았다. 오빠는 걸핏하면 언니를 때려 코피를 터뜨렸다. 죽은 듯 엎드려 얹전히 매질을 당한 언니는 코피가 멎을 때까지 고개를 젓혀 눈물 가득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와 오빠 사이의 긴장은 베일 듯 날로 위태롭게 팽팽해졌다.

여름이 지나자 읍내 저잣거리의 장이 서는 날 외에는 한결 쓸쓸하고 스산해졌다. 우리를 밤마다 알 수 없는 흥분과 열기로 들뜨게 하고 모여들게 하던 여름은 지나간 것이다.

가을의 끝 무렵, 도회지에 나가 있던 목수의 작은딸, 부네의

동생인 서분이가 돌아왔다.

영어 공부하니?

집으로 돌아온 첫날 그녀는, 들창으로 불룩한 가슴까지 들이밀며 오빠에게 스스럼없이 물었다. 오빠는 목덜미까지 시뻘개졌다.

멧을 부려, 반짝이는 형겔으로 파마머리를 질끈 묶고 얼굴에 보양계 분가루가 얹힌 서분이는 열여덟 살이었다.

순 한국식 발음이다, 애.

그녀는 깔깔 웃었다. 어머니는 서분이가 미국인 집의 식모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서분이의 말에 오빠의 얼굴은 또다시 홍당무가 되었다.

내가 있는 집, 해리슨 씨 말야. 너 같은 애 여럿 미국 보냈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말해줄게. 그 사람들, 너같이 불우하고 의지 강한 애들을 참 좋아해. 어떡허든 도와주려고 애쓴단다.

오빠의 눈이 기대에 차서 반짝였다.

서분이는 스스럼없이 우리 방을 드나들었다. 오빠는 거센 목소리로 묻는 말에나 더듬더듬 대답하고 곧잘 얼굴을 붉혔으나 서분이의 때없는 내방을 그닥 싫어하지 않았다.

서분이는 멋쟁이였다. 밤마다 엉덩이를 흔들고 다니는 읍내 처녀들에 비할 바 아니었다. 집에서도 꼭 끼는 스커트에 환히 살이 비치는 양말을 신고 굽 높은 구두를 신었다. 서분이는 우리에게 껌과 초콜릿을 주고 어머니에게는 냄새 독한 향수를 주었다.

어쩌면 손도……

할머니는 서분의 분결 같은 손에 감탄했다. 물론 '식모를 한다

면서' 라는 뒤엣말은 목 안으로 삼키고서였다.

일도 별로 없대요. 빨래도 기계로 하고 청소도 기계로 한대나
요.

안집 여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처음부터 신임을 얻기는 어려워. 일단은 다 도둑놈으로 보려
하거든. 처음엔 시험을 한단다. 우선 좋은 날씨군요/행복한 아
침입니다/나는 절대로 훔치지 않았습시다/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라는 말만 할 수 있으면 돼.

해리슨 씨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도둑질과 거짓말이라고 했
다. 서분이는 근 보름째나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 동안 오빠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고용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해리슨 씨의
성품·취미·가족 상황·식성 따위를 낱알이 익혔다. 우리는 미
군 문관인, 좀 비대한 중년의 백인 사내가 아침에는 홍차를 마시
고 피가 흐를 듯 말 듯 슬쩍 익힌 비프 스테이크를 즐긴다는 사
실까지 알게 되었다.

오빠는 해리슨 일가에 관한 한 무엇이든 서분이의 말에 열심
히 귀를 기울였다. 해리슨 씨가 반드시 자기를 고용하리라는 자
신은 없었지만 그녀의 큰소리대로 불원간 미국인 집에 가게 될
것이고 모든 미국인은 친절한 해리슨 씨에 다름아니었으므로.

우리 역시 곧 오빠가 미국에 가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다.

서분이는 정말 오빠에게 친누이나 되는 것처럼 허물없이 굴었
다. 오빠가 긴 장대로 익은 감을 따면 그녀는 스커트를 벌려 감
을 받고, 때로는 주르르 감나무로 기어올라 가지 사이에 다리를
벌리고 걸터앉아 감을 따서 오빠에게 던지며 깔깔거렸다.

영딩이에 바람이 잔뜩 들었어.

할머니는 혀를 차며 못마땅해했다. 밤이면 읍내 저잣거리에
나가는 대신 오빠는 그녀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지고 밤 깊어 마
른풀내를 풍기며 소리없이 들어와 누웠다. 보름 간의 휴가를 마
친 서분이는 곧 연락을 하겠노라는 약속을 남기고 해리슨 씨의
집으로 떠났다.

아임 낫 라이어.

아임 어니스트 보이.

오빠는 미국인과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새로 익힌 몇 개의
문장을 열심히, 되도록 부드럽게 혀를 굴려 외었다.

감은 대풍(大豊)이었다. 서너 그루의 늙은 감나무는 마지막의
열린 듯 쇠잔한 기력을 모아 화려하고 풍성하게 열매를 익혔다.
뒤뜰은 붉게 익은 감들이 지천으로 구르며 썩어가고, 부네의 죽
음으로 낮이 나간 안집 여자는 우리가 감을 주워 먹어도 말없이
떨거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가으내 우리는 굳은 똥을 누느
라고 애를 쓰고 이불이며 옷에 불그죽죽한 감물을 들여 할머니
에게 혼이 났다. 안채에는 가끔씩 낫선 노파가 드나들었다. 사람
을 놓아 사윗감을 물색한다는 소문이 쉬쉬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가을이 깊어지고 날씨가 썩 차가워졌다. 댕돌 위에 벗어난 고
무신은 밤새 쇠처럼 차갑게 굳어지고, 아침에 선하품을 깨물며
방문을 열면 안채 지붕과 마당에 서리가 하얗게 내린 것을 볼 수
있었다.

곧 부러질 듯 앙상한 감나무 꼭대기 가지에는 홍시 두어 개가

찬 서리 속에 터질 듯 밝은 홍색으로 익어 아침마다 까치가 날아 들었다. 쪼아먹은 자리는 낮 동안 햇빛과 바람으로 거무스레 말라가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아파아파 생살을 보이며 붉게 물크러졌다.

죽은 지 백일이 되는 날, 부네는 청홍의 비단실로 묶은 사주를 받고 시집을 갔다.

저물 무렵, 화문석 깔린 대청 마루에 떡시루가 놓이고 모처럼 진술의 비단옷을 차려 입은 안집 여자는 치마를 벌려 청·홍·황·백·흑, 다섯 가지 빛깔의 채단을 받았다. 신랑 자리는 지난해 여름 뱀에 물려 죽은, 산 너머 마을 묘위답 마름이었다. 지체가 기울어 색시 쪽에서 마다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마당에 차일이 쳐지고 안집 여자는 시중 웃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대며 술과 국수를 날랐다. 그녀의 많은 딸들은 하나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뭐 좋은 일이라고……

안집 여자가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찍어내자 사람들도 그럴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혼례에 쓸 요량으로 중돌을 잡았기에 사내아이들은 돼지 오줌통에 물을 넣어 종일토록 김장건이 끝낸 빈 밭에서 공을 찼다.

밤이 깊어 마당의 화톳불이 사위어지자 신방이 차려졌다. 녹의홍상으로 꾸민 부네와 신랑은 나란히 이불 속에 누웠다. 신방의 불이 꺼질 때 그때까지도 화톳불가에 모여 술잔을 돌리던 사람들은 문득 조용해졌다.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 듯 청사초롱 불을 밝혀 드리운, 활짝 열린 대문계를 바라보았다. 등줄기로 서늘히 지나가는 것은 차가운 바람의 한 자락일까, 뭉텅이 내리는 흰

무서리일까.

안집 여자의 소리 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밤새 들려왔다. 외눈박이 목수는 술에 취해 초저녁부터 인사불성이었다.

이상한 일이야. 글썽 아침에 신방에 들어가보니 지푸라기 인형 둘이 다리가 얹혀 있더라.

아무렴, 그럴려구요.

아니다. 아무리 처녀로 죽은 딸년, 혼백이나 제대로 보내자고 하는 짓이라도 섬뜩해서 신랑 좀 떨어져 누었는데도 이불을 들쳐보니 바짝 붙어 다리가 얹혔더라고 권여편네, 그 상황에도 기함을 하고 넘어가더라.

아침 상머리에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렸다.

왜 짚각시 다리가 꼬이지?

언니가 고개를 가우뚱하며 말참견을 했다.

어린애들은 알 거 없다.

할머니가 말했으나 언니는 알 만하다는 듯 사팔눈을 만들어 오빠를 흘깃 바라보았다. 오빠는 벌개진 얼굴로 바빠 손갈질을 했다.

첫날밤을 치른 신랑 각시는 바람을 피해 야산의 골진 곳에서 불에 태워졌다. 첫날밤의 원앙금침과 녹의홍상도 태워졌다. 초겨울의 차갑고 맑은 날씨였다.

햇빛에 불꽃은 투명하게 흔들리고 구천에서 외롭게 떠돌던 혼백들은 검은 연기로 흐트러지며 어우러지며 가뭇없이 사라졌다.

다시는 짐승으로도 인간으로도, 몸을 받아 이승에 나오지 마라.

안집 여자는 소릇이 남은 재 위에 술을 뿌리며 울었다.
먼 하늘로 사라지는 한 줄기 연기뿜의 까닭을 알 리 없는 아이
들은 야산 등성이에서 돼지 오줌통을 높이높이 차올리며 와아와
아 물려다녔다.

가을이 다가고 겨울이 되도록, 곧 연락을 보내마던 서분이에
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해리슨 씨에게는 오빠를 데려갈
의사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거꾸 이틀을 돌아오지 않자 오빠는 오랜만에 언니의
코피를 터뜨렸다. 고스란히 엎드려 맞던 이제껏과는 달리 언니
는 고개를 뺏뺏이 들고 소리쳤다.

그 바람둥이년, 거짓말을 한 거야. 난 오빠가 그 계집애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 더러운 짓을 안단 말야.

한쪽 벽에 버티어 선 거울은, 줄줄이 피를 흘리고 있는 버짐투
성이의 메마른 계집애를, 슬픔과 증오와 수치심으로 비참하게
일그러진 열여섯 살 사내아이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며 오연히
번쩍었다. 오빠는 참담한 얼굴로 거울을 노려보다가 발길로 걷
어찼다. 삼시간에 방은 발 디딜 자리도 없이 잘디잔 거울 조각으
로, 번득이며 튀어오르는 빛으로 가득 찼다. 저녁마다 화장을 하
던 어머니의 얼굴이 천 조각 만 조각으로 깨어졌다. 오빠는 그
천 조각 만 조각의 얼굴에 결별을 고하듯 슬프고 초라하게 어깨
를 늘어뜨리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산등성이 너머에서는 여전히 대포 소리가 들려왔으나 전쟁은
곧 끝날 거라는 소문이 돌고 피난민들은 하나 둘 이 마을을 떠나
기 시작했다.

다른 피난민들처럼 훌훌히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었던 우리는
춥고 긴 겨울을 방안에 갇혀 지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 탓에 겨울은 유독 춥고 길었
다. 해가 지면 곧 밤이 왔다. 저녁을 먹고 나면 우리는 화로를 끼
고 앉아 내복을 벗어 화로 위에 팽팽히 펴놓았다. 그러면 옷 솔
기에 숨었던 이가 더운 기운에 게으르게 기어나오고 우리는 그
것을 손쉽게 주워 화로에 떨어뜨렸다. 저녁내 방에서는 이를 태
우는 누런내가 가시지 않았다.

밤에 옷을 벗어 마루에 내놓고 자면 이들은 밤 추위에 발짱고
탱탱하게 얼어 죽어 있었다.

겨울이 다 갈 무렵 우리는 이웃 동네로 이사를 했다. 부네의
부모가 딸들이 살고 있다는 도회지로 가기 위해 집을 팔았기 때
문이었다.

때늦은 함박눈이 퍼붓는 날이었다. 나는 눈 위에 또박또박 찍
힌 발자국이 펄펄 내리는 눈에 소릇이 지워지는 것을 아쉽게 돌
아보며 짐 실은 달구지를 따라 걸었다.

이사하는 날 눈이 오면 부자가 되고 복 받는단다.

파편에 다친 발이 동상으로 덧나 심하게 절룩이며 할머니가
말했다.

글쎄요.

어머니는 씩씩히 웃었다.

왜들 그러지 않든? 시집가는 날에도 눈이 오면 좋다고. 지난
일이 눈 속에 다 묻히니 왜 안 그렇겠냐.

할머니는 강요하듯 안타깝게 또 말했다. 어머니는 대꾸 없이
삭막한 얼굴로 읍내 저잣거리계를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어

머니의 푸르스름한 얼굴은 펍 늙고 지쳐 보였다.

저장거리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길이 우리가 트럭을 타고 왔다는 도회지로 가는 신작로, 그리고 멀리 겹쳐 보이는 능선 위로 옮겨가며 아득해졌다.

새로 세들어간 방앗간집 안마당에는 손쉽게 두레박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르래가 장치된 크고 깊은 우물이 있었건만 할머니는 여전히 빨래 함지를 이고 개울로 나갔다.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로 얼어붙은 도르래가 움직이지 않고 역시 방앗간에 일이 없는 철이라 주인이 수리를 서두르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할머니가 빨강게 곱은 손을 오그라뜨리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방에 갇혀 동생을 돌보아야 했다.

양지바른 앞마당에 파릇이 풀이 돋기 시작할 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북향의 사랑채 뒷문 밖은 두꺼운 얼음에 덮여 있었다. 꽃샘바람이 불고 그 두꺼운 얼음이 녹기 시작할 무렵 방앗간 주인은 겨울 동안 등겨 먼지와 거미줄에 묻힌 방아 기계를 털어내고 우물의 도르래에 기름칠을 했다. 나는 비로소 방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고깔 모양의 모자를 씌운 동생을 업고 할머니는 빠그덕빠그덕 도르래를 돌려 물을 길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했다.

방에서 풀려난 나는 또다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내 발길이 마지막으로 닿는 곳은 대개 먼저 살던 동네였다.

부네의 집 안채에는 이미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마당에서 소꿉놀이를 하던 계집애들은 대뜸 경계하는 눈빛이 되어 나를 노려보았다.

우리가 살던 방은 허물리고 있었다. 지신(地神)이 들떠 변소와 헛간을 옮겨 짓는다고 했다. 아직 남아 있는, 벽에 꼬적거린 우

리들의 낙서와 남몰래 만들었던 흙집들, 오빠의 책게가 놓였던 창은 사라졌다. 오빠는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영어책을 읽지 않았다.

빈방은 엄청나게 작았다. 것처럼 작은 방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상하게 느껴졌다.

집의 새 주인은 삿자리를 걷어내고 방바닥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았던 자취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사내의 힘찬 삽질에 의해 점차 깊어지는 방 가운데의 구덩이를 보며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서러움으로 눈물이 돌았다. 새 주인의 삽질에 의해 뜰의 어느 구석에서인가 재 묻은 닭털이 끌려나오고 부서진 거울 조각들이 흙과 뒤섞일 것이다.

4월이 되자 나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언니가 다니는 학교에 입학했다. 바람 불고 흙먼지 이는 날에도 솜사탕 장수는 툴, 툴, 툴, 툴 솜사탕을 피워올렸다.

어머니가 읍내 정육점 사내와 정분이 났다는 소문은 동네에 짜아하게 퍼졌다. 그 사내의 마누라에게 머리채를 잡혀 읍내를 몇 바퀴 돌았다던 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다그쳤다.

새끼들 다 팽개치고 달아날 셈이냐. 이젠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오빠는 우리를 모아놓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이제 헤어지는 거다. 너희들은 교아원에 가 있어라. 내가 성공해서 데리러 오겠다. 구두도 닦고 신문도 팔겠다. 도둑질도 하겠다. 미국엘 가서 어떻게든 성공하겠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저녁마다 읍내 밥집에 나가고 오빠는 봄내 여름내 저장거리에서 살다시피 했다.

오빠는 이제 허를 떨며 외롭게 하모니카를 부는 대신 차부의 조수들처럼 후익후익 멋지게 휘파람을 불었다. 나는 어머니의 지갑에서 점차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꺼냈다.

여름이 오고 전쟁은 끝이 났다. 그때까지 남아 있던 피난민 두어 가족이 마지막으로 마을을 떠났다.

여름이 다 가도록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늦여름의 아침, 손바닥만한 거울을 창틀에 기대놓고 머리를 빗던 어머니가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머리를 빗는데 보리톨 같은 이가 자꾸 떨어지지 뭐예요.

할머니의 낯빛이 대번에 달라졌다.

머리를 푼 건 나쁘다만 꿈에 이를 보면 좋다는데…… 암튼 무슨 소식이 있을라나보다. 에미가 한번 올라가봐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할머니가 쇠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잠깐 푸르르 떨렸다.

노랑눈이는 학교 안 가니?

침울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에 덩달아 심란한 얼굴을 짓고 책보 싸던 손을 놓아버린 내게 할머니가 호통을 쳤다.

나는 얼른 허리에 책보를 두르고 뛰어나왔다. 해는 벌써 높다랗게 솟아 불별을 쏟아붓고 있었다.

시작종을 친 지 오래인 듯 운동장에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우리 반의 열린 창문으로 여럿이 소리를 합해 국어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똥보야, 오늘은 안 사먹니?

숨사탕 장수가 불러세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운동장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때 첫 시간 끝나는 종소리가 땡땡 울렸다.

마지막 수업인 넷째 시간은 미술이었다. 우리는 미술 교본에 있는 대로 화분에 심겨진 튤립을 그렸다.

초에 물감을 섞어 만든 크레용은 잘 칠해지지 않았다. 자꾸 동강동강 부러져나갔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코를 훌쩍대며 열심히 색칠을 했으나 나는 멍청히 앉아 앞에 앉은 아이의 머리털이 뽑힐 듯 단단히 땅은 머리를, 팽팽히 당겨진 머리털 밑 흰 피부에 송송 맺혀 반짝이는 땀방울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이 부엌에 칠판을 비추어 분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무더운 날씨였다. 나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돈을 만지작거리며 괜한 걱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갈 때까지 교문 앞에 숨사탕 장수가 있어줄 것인지를 생각했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신작로, 띄약별 아래 맥고모자를 쭈그러뜨려 쓴 남자가 거렁뱅이처럼 다리를 끌며 지나갔다. 더위 때문인가, 아니면 낯술에 취해 있는 걸까, 벌건 얼굴에 키가 훌쩍 큰 남자였다. 어느 순간 나는 그와 눈이 마주친 것 같기도 했다. 그는 줄곧 무엇인가 찾아내려는 듯 열린 창문마다 찬찬히 살피며 걷고 있었던 것이다.

자, 시간 됐다. 다 그런 사람은 갖고 나와.

선생님이 교탁을 자막대기로 딱딱 두들겼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코를 훌쩍 들이마시고 하얀 채로 남아 있는 반도 못 그린 그림에 빨강색과 초록색의 크레용을 문질렀다.

끝나는 종이 울릴 때 늙은 급사가 쪽지를 들고 교실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교장 선생님이 부르신다. 어서 가봐.

나는 급사를 따라 복도 맨 안쪽의 교장실로 들어갔다.

교장 선생님은 때마침 손님을 배웅하고 있던 차였다.

육학년 김정님이 동생이지?

손님을 보내고 돌아온 교장 선생님의 물음에 나는 조그맣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오셨다. 집을 몰라 학교로 언니를 찾아오셨어. 교문 밖에서 기다리신다니 어서 모시고 집에 가거라.

햇빛이 교장 선생님의 안경을 가로지르고 그 뒤 흑판에 아아 아아아아 떨어 금을 긋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모시고 가거라.

교장 선생님의 말을 나는 아무 뜻 없이 곱씹어 중얼거렸다.

내 눈길은 크림을 씌운 케이크 두어 조각이 담긴 접시가 놓인 탁자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 주위로 파리가 끈끈히 날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곧 회의가……

늙은 급사가 문간에 서서 우물우물 말했다. 교장 선생님은 더 무슨 말을 할 듯 잠깐 내 어깨에 손을 얹었으나 어서 아버지에게 가보렴, 한마디 남기고는 앞서 방을 나갔다.

교장 선생님이 나가자 나는 얼른 탁자 위의 단 케이크를 한 조각 입에 우겨넣었다. 급히 삼키는 바람에 목이 메었다. 눈물이 쑥 비져나왔다. 나는 나머지 한 조각을 재빨리 주머니에 집어넣

고 교장실을 나왔다. 그리고는 복도를 빠져나왔다.

변소의 창으로 거위처럼 두 팔을 휘저으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언니의 모습이 보였다. 사내애들은 손가락 사이에 먼 도날을 끼워 계집애들이 뽕뽕이 마주잡고 있는 고무줄을 끊고 계집애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흙을 집어 뿌렸다. 그애들을 헤집으며 언니는 달려가고 있었다. 교문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탱자나무 울타리 위로 솜사탕이 구름송이처럼 등실 떠올랐다.

나는 이러한 광경을 보며 주머니 속의 케이크를 꺼내 베어물었다. 그것을 다 먹고 났을 때 갑자기 욕지기가 치밀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꾸역꾸역 토해냈다. 단 케이크는 한없이 한없이 목을 타고 넘어왔다. 까닭 모를 서러움으로 눈물이 자꾸자꾸 흘러내렸다.

나는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구역질을 하며 똥통 속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똥통 속으로 어디선가 한 줄기 햇빛이 스며들고 눈물이 어려 어롱어롱 퍼져 보이는 눈길에 부엌에 끓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무엇인가 빛 속에서 소리치며 일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